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는 가나자와시의 전략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창의도시 가나자와를 더욱 빛내기 위해 각 종 전략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eAT ‘11 KANAZAWA (이트 가나자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나자와시는 다채로운 전통공예를 지닌 수공예 도시이며 전통예술과 문화를 육성해 온 도시인데, 새로운 예술·문화·산업의 창조와 인재육성을 지향하여 1997년부터 개최해 온 일렉트로닉 아트 제전이 ‘eAT KANAZAWA’입니다.

‘eAT KANAZAWA’는 일본 국내외 크리에이티브와 학생, IT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호 교류의 장으로써, 가나자와를 무대로 열리는 일렉트로닉 표현자들의 제전입니다.

15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연도는 2 월 4 일과 5 일 이틀에 걸쳐 ‘메이드 인 재팬~가나자와에서 발신하는 NIPPON’을 테마로 ‘포럼&어워드’, ‘세미나’ 및 가나자와 특유의 ‘야주쿠(저녁교실)’를 개최합니다. ‘포럼&어워드’에서는 프로 아티스트·크리에이티브를 대상으로 표창식, 기념강연, 라이브 콘서트를 열고, ‘세미나’에서는 음악과 제작에 대해 각 분야의 제일인자가 의견 교환을 합니다. 또한 ‘야주쿠’에서는 가나자와 시내에 있는 유와쿠 온천에서 밤을 새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가자에게 새로운 창조성과 미래로 눈을 뜨게 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아래의 HP 등에서 참가 예약을 받고 있으므로, 여러분도 부디 참가해 주십시오.

<http://www.eat-kanazawa.jp/>

앞으로도 창의도시 가나자와는 문화와 비즈니스를 접목하기 위해 실천적 전략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더없는 건승과 활약을 기원하며,

일본 가나자와시 창의도시추진 담당 드림